

‘-이’와 ‘Be’의 접사적 분석

성 태 수*

차 례

1. 서론
2. ‘-이다’구문과 형용사 구문
3. 이론적 가정
4. ‘N+이다’의 성격
5. 결론

1. 서론

국어에 나타나는 ‘-이다’구문은 다음과 같다. 아래 예문들 (1)–(5)는 모두 ‘-이다’를 포함하고 있다.

- (1) a. 그 학생이 철수다.
b. 철수가 그 학생이다.
- (2) a. 철수가 학생이다.
b. *학생이 철수이다.
- (3) 그는 야구가 최고이다.
- (4) 서울이 건물들이 현대적이다.
- (5) 철수가 항상 산책이다.

(2a)는 NP1과 NP2의 위치를 바꾸면 (2b)와 같이 비문이다. 반면, (1a)는

* 남서울대학교

NP1과 NP2의 위치를 바꾸어도 (1b)와 같이 정문이다.¹⁾ 우리는 이 논의에서 (1a)와 같은 ‘-이다’구문을 <동지시적 ‘-이다’>구문으로 (2a)와 같은 ‘-이다’구문을 <술어적 ‘-이다’>구문으로 지칭하겠다. 우리는 (3), (4), (5)의 ‘-이다’가 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와 같이 주어의 속성이나 상태를 서술해준다는 점에서 이들을 (2a)의 ‘-이다’와 같이 <술어적 ‘-이다’>로 가정할 것이다.

2절은 <동지시적 ‘-이다’>구문과 <술어적 ‘-이다’>구문의 의미역 이론과 격 이론에 관련된 문제를 살펴본다. 3절은 ‘-이다’구문과 관련된 이 논문의 이론적 가정을 제시하고, 이 이론적 가정을 바탕으로 ‘-이다’구문의 구조를 제시한다. 4절은 ‘-이다’의 선행명사들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을 살펴본다.

2. ‘-이다’구문과 형용사 구문

먼저 (2)-(5)의 <술어적 ‘-이다’>구문이 의미역 이론에서 형용사구문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겠다.

국어는 술어자리에 형용사가 위치할 경우 서구어와 다른 특성을 보인다. ‘-이다’는 주어 NP1과 술어 NP2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술어가 형용사구(AP)인 경우는 ‘-이다’가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이다’는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없고, 반드시 명사와 결합하여야 한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이다’를 의존적 접사로 파악하는 주장들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 준다.

국어에서 형용사는 [상태]와 같은 의미자질에서 동사와 구분이 되지만, 술어 위치에 형용사와 동사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용사와 동사가 동일한 통사구조를 가지는 것처럼 보인다. 즉, 형용사구(AP)와 동사구(VP)는 동일하게 INFL의 보충어(complement)자리에 위치한다.²⁾ 국어는 영어, 히브

1) 주어를 NP1로 ‘-이다’를 선행하는 명사를 NP2로 부른다.

2) 실제 유현경(1998)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동사와 형용사를 하나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동사와 형용사의 품사 구분기준에서 통사적인 측면이 무시되고, 형태와 의미에 너무 치우쳤다.

둘째, 일부 자동사와 형용사간에 통사적인 유사성으로 말미암아 품사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리어, 러시아어에서 명사나 형용사가 술어로 실현될 경우 계사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들 언어와 다르다. 이 절은 동사구문과 형용사구문의 구조적 차이를 설명하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절은 국어의 ‘-이다’가 서구의 언어와 같이 형용사를 술어로 선택하지 않으나, 독립적으로 술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구문과 <서술적 ‘-이다’>구문의 특징을 비교할 것이다. 우리는 양정석(1986)과 안명철(1995)의 주장을 받아들여, 명사와 결합되는 <술어적 ‘-이다’>가 접사로 분류되며, 명사(구)와 <술어적 ‘-이다’>의 결합은 실제로 형용사 술어와 비슷한 성격을 보인다고 가정할 것이다.

(6-7)에서 보여지 듯, <술어적 ‘-이다’>는 선행명사와 결합하여 형용사와 같이 술어 역할을 한다.³⁾ 즉, 명사(구)와 <술어적 ‘-이다’>의 결합은 형용사와 동일한 [상태] 의미자질을 가짐으로써 동사와 구분된다.

(6) 철수는 학생이다.

(7) 그는 야구가 최고이다.

실제로 (6)의 ‘학생이다’는 ‘똑똑하다’와 같은 속성형용사로 바꿀 수 있으며, (7)의 ‘최고이다’는 ‘훌륭하다’와 같은 품질형용사로 바꿀 수 있다. 이는 “명사 + ‘-이다’”와 형용사가 동일하게 용언처럼 기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에서 ‘학생이다’는 명사구 ‘학생’과 <술어적 ‘-이다’>의 결합이고, (7)에서 ‘최고이다’는 명사 ‘최고’와 <술어적 ‘-이다’>의 결합이다. 모든 <술어적 ‘-이다’>가 명사와 결합되어 주어의 성질, 모양, 상태 등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형용사와

3) 이 소고와 양정석(1986)의 ‘이다’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다르다. 양정석(1986)의 ‘-이다’는 의미를 지니며, 두 가지 종류로 실현된다. 하나는 NP1과 NP2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주동사로, 다른 하나는 명사와 결합되어 서술적 기능을 하는 접미사이다. 이 분류의 기준을 그는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는 주동사로 사용된 ‘-이다’는 [+실체성]자질 명사와 결합된 예이고, 접미사로 사용된 ‘-이다’는 [-실체성]자질 명사와 결합된 예이다. (ia)와(ib)는 주동사 ‘-이다’를, (ii)는 접미사 ‘-이다’를 보여준다.

(i) a. 학은 두루미이다.

b. 저 콩과 식물은 아카시아다.

(ii) 나는 경애가 최고이다.

‘-이다’가 복합용언으로 명사와 결합되는 접사로의 분류는 양정석(1986), 안명철(1995), 고창수(1992)를 참고하시오.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양병석과 안명철의 주장은 국어의 <술어적 ‘-이다’>구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

동사구문과 구별되는 형용사구문과 “명사(구)+<술어적 ‘-이다’>”구문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용사와 “명사(구)+<술어적 ‘-이다’>”는 자신의 주어에게 행위자역(agent)이 아닌, 대상역(theme)을 부여한다. 둘째, 형용사구문과 <술어적 ‘-이다’>구문은 (8-12)에서와 같이 다중주어현상을 보인다. (8)-(10)에서는 <술어적 ‘-이다’>가 통사적 파생접미사로 사용되어 명사구를 형용사로 파생시킨 것이고, (11)과 (12)에서는 <술어적 ‘-이다’>가 어휘적 파생접미사로 사용되어 명사를 형용사로 파생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 (8) 철수가 직업이 변호사이다.
- (9) 철수가 신분이 학생이다.
- (10) 철수가 취미가 야구이다.
- (11) 철수가 솜씨가 정말로 세계적이다.
- (12) 그는 야구가 정말로 최고이다.

<술어적 ‘-이다’>구문과 형용사구문이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명사구+<동지시적 ‘-이다’>”구문은 형용사구문과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 (13) 철수가 그 학생이다.

(13)의 ‘-이다’는 명사구 ‘그 학생’과 결합하고 있다. ‘그 학생’은 지시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술어적 ‘-이다’>구문인 (7)의 ‘학생이다’와 같이 다른 형용사로 대체될 수 없다. 또한, (13)는 (7)과 다르게 다중주어를 취할 수 없다.

- (14) *철수가 신분이 그 학생이다.

우리는 “명사(구)+<술어적 ‘-이다’>”가 형용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서 “명사구+<동지시적 ‘-이다’>”와 구별되고, <술어적 ‘-이다’>구문이 다중 주어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지시적 ‘-이다’>구문과 구별된다는 점을 알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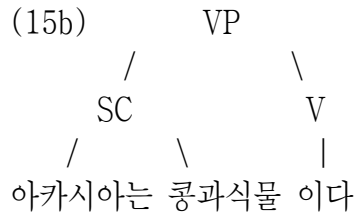
지금부터 <동지시적 ‘-이다’>구문 (15a)와 <술어적 ‘-이다’>구문 (15b)가 의미역 이론과 격 이론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볼 것이다. (15a-b)의 예문을 여기서 반복한다.

- (15) a. 두루미는 학이다.
 b. 아카시아는 콩과식물이다.
 c. 경애가 최고이다.

안명철(1995)은 (15a-b)의 ‘-이다’를 통사적 과생접사로 가정하고, <동지시적 ‘-이다’>구문 (15a)와 <술어적 ‘-이다’>구문 (15b)는 명사구와 통사적 과생접미사 ‘-이다’의 결합한 형태를 술어로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양정석(1986)은 (15a)와 (15b)의 ‘-이다’가 자신의 주어 NP와 보충어 NP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동일한 어휘동사라고 주장한다.

사실 지금껏 생성문법 안에서 영어 ‘NP+be동사+NP’구문과 타동사 구문 ‘NP+타동사+NP’와의 차이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be동사’구문과 타동사 구문 사이에 차이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분석이 시도되어지고 있다 (Longobardi 1984, Heggie 1988, Moro 1997). 하지만 우선 ‘be동사’구문의 분석과 함께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두개의 ‘be’를 과연 별도의 ‘be’로 인식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be’로 인식할 것인가이다. 국어 역시 <동지시적 ‘-이다’>와 <술어적 ‘-이다’>구문의 구조가 타동사구조와 다르다는 것과, 또 이 두 종류의 ‘-이다’를 하나의 동일한 ‘-이다’로 혹은 별개의 ‘-이다’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선 각각 ‘-이다’구문의 특징을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래와 같이 (15b)에서 <술어적 ‘-이다’>는 비지시적인 명사구와 결합하여 술어 역할을 하고, 굴절형태소와 결합되어 시제를 표시한다. 우리는 Heggie(1988)와 Moro(1997)의 가정을 받아들여 <술어적 ‘-이다’>가 소절 (small clause)을 보충어로 취한다는 주장할 것이다.



‘아카시아’는 자신의 술어 ‘콩과식물’에게서 의미역을 부여 받고, 격을 받기 위하여 [spec,IP]로 이동한다. ‘콩과식물’은 형용사와 동일하게 주어 ‘아카시아’에 대한 술어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비지시적 NP로 의미역을 받을 수 없다.⁴⁾ <술어적 ‘-이다’>가 NP2와 결합하여 주어 NP1의 술어 역할을 한다는 점은 (15b)가 (15a)보다는 (15c)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동지시적 ‘-이다’>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⁵⁾ <동지시적 ‘-이다’>가 타동사와 같이 자신의 주어와 보충어에게 의미역을 부여한다는 양정석(1986)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동지시적 ‘-이다’>구문은 의미역 이론과 관련해 타동사구문과 매우 흡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과연 <동지시적 ‘-이다’>의 보충어와 타동사의 보충어가 각각 어떤 통사적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자.

타동사구문의 주어의 위치와 다르게 목적어나 목적어 내부의 요소는 이동에 있어서 매우 자유롭다. 이는 목적어자리가 타동사에 의해 의미역 표시(θ-marked)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정석의 <동지시적 ‘-이다’>가 NP1과 NP2에 의미역을 할당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과연 그 의미역이 <동지시적 ‘-이다’>가 부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남는다. 여기서 잠정적으로 <동지시적 ‘-이다’>가 타동사와 동일하게 자신의 보충어인 NP2에게 의미역

4) 문장은 주어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속성)를 말하는 술어와 이루어진다. 주어는 어떤 물체나 대상을 지시(refer to)하고 자신의 의미역을 가지나, 술어는 명사일 때조차 주어의 기능을 설명해준다는 면에서 자신의 의미역을 가질 수 없다. 즉 서술적 ‘이다’를 선행하는 NP2는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술어적 사용이며, 이 NP2는 자신의 의미역을 가질 수 없다.

5) Rothstein (2001)은 두개의 be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한다. 첫째, 대부분의 언어에서 ‘동지시적 be’와 ‘술어적 be’는 동일한 음운적 형태를 지니며, 둘째, 생성문법은 ‘동지시적 be’구문이 타동사구문과 동일하게 자신이 주어와 목적어에게 의미역을 부여한다고 주장하나, 타동사의 목적어와 다르게 ‘동지시적 be’를 뒤따르는 목적어 내부로부터의 이동은 자유롭지 않다.

을 부여한다고 가정하면서, NP2나 NP2 내부의 요소가 이동에서 자유로운지를 살펴보자. 우리는 <동지시적 ‘-이다’>가 <술어적 ‘-이다’>와 다르게 자신의 보충어로 소절을 선택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아래 (16)에서 <동지시적 ‘-이다’>는 NP2를 의미역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보충어 NP2나 NP2 내부로부터의 이동이 불가능하다. 반면, (17)에서는 타동사 ‘만나다’와 ‘초대하다’의 목적어나 목적어 내부로부터의 이동이 자유롭다.⁶⁾ 물론 이와 같은 고찰은 ‘-이다’가 독립적 어휘동사라는 양정석(1986)의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 (16) a. *[그 친구가 인] 메리는 학교에 간다.
 b. *[그 친구가 인] 그 여자가 여기에 있다.
 c. *그 학생은 [그의 친구가 이었던] 메리이다.
- (17) a. [그 친구가 어제 처음 만났던] 메리는 그를 초대했다.
 b. [그 친구가 초대했던] 메리가 도착했다.
 c. 그 학생은 [그의 친구가 초대했던] 메리이다.

결국, 예문 (16-17)에서 나타난 문법성의 차이는 <동지시적 ‘-이다’>의 보충어와 타동사의 보충어가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지시적 ‘-이다’>가 NP2를 의미역 표시를 하더라도 이동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국어 <동지시적 ‘-이다’>는 접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른 어기에 결합되어야 한다. 둘째, 양정석의 주장대로 어휘동사인 <동지시적 ‘-이다’>가 자신의 보충어인 NP2에게 의미역은 할당하나, 그가 제시한 목표역과는 다른 어떤 특수한 의미역을 부여받는다. 만약 (16)의 <동지시적 ‘-이다’>를 접사로 가정한다면, 이 접사가 자신과 결합해야 될 어기를 잃고 좌초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어쨌든, 국어의

6) 이는 영어 be동사 구문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보인다.
 (i) a. *Mary, who his best friend is t, likes to go to the beach.
 b. *The woman that his best friend is t is here.
 (ii) a. Mary, who his best friend met t yesterday for the first time, wants to invite him to a movie.
 b. The woman that his best friend invited t has arrived.
 c. It is Mary that his best friend has invited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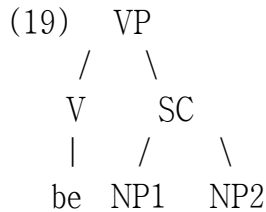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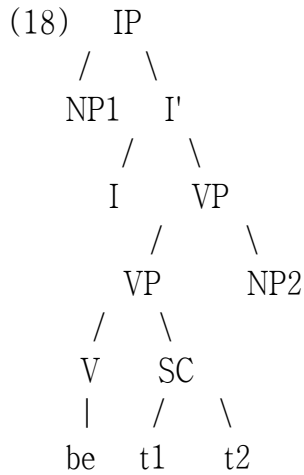
‘-이다’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선행명사와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국어의 ‘-이다’는 접사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접사 ‘-이다’와 이름(name) ‘메리’의 결합된 형태인 ‘메리이다’를 형용 서술어구로 볼 수 있을 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동지시적 ‘-이다’>가 어휘동사일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동지시적 ‘-이다’>에 의해 연결되는 두개의 명사구가 지시적 의미를 가지며, 이는 두 명사구 모두가 의미역을 가짐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동지시적 ‘-이다’>를 어휘동사로 가정할 경우, NP1과 NP2가 무엇에게서 또 어떻게 격과 의미역을 할당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 절에서 안명철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지시적 ‘-이다’>가 <술어적 ‘-이다’>와 동일하게 보충어로서 소절을 선택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한 <동지시적 ‘-이다’>가 어휘동사로 가정될 경우, 격이론이나 결속이론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함을 살펴볼 것이다.

3. 이론적 가정

국어 ‘-이다’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영어의 ‘be’동사에 대한 여러 주장을 먼저 살펴보자. Heggie(1988), Moro(1997), Rothstein(2001)는 <술어적 ‘be’>가 소절을 자신의 보충어로 소절을 선택하고, 그 소절의 주어는 격을 부여받기 위해 [spec,IP]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지시적 ‘be’>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주장이 있어왔다. 하나는 <동지시적 ‘be’>가 <술어적 ‘be’>와 동일하게 소절을 자신의 보충어로 선택한다는 Heggie(1988)와 Moro(1997)의 주장이며, 다른 하나는 <동지시적 ‘be’>가 소절이 아닌 명사구를 자신의 보충어로 택한다는 Rothstein의 주장이다. 우리는 Heggie와 Moro의 가정을 받아들일 것이지만 먼저 이 두 주장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Heggie(1988)는 영어의 <동지시적 ‘be’>구문의 심층구조(D-structure)로 (18)을 제시하며, Moro(1997)는 (19)을 제시한다.



(18)에서 Heggie는 <동지시적 ‘be’>가 <술어적 ‘be’>와 동일하게 자신의 보충어로 소절을 선택하지만, NP1은 격을 부여받기 위해 [spec,IP]로 이동하고, NP2는 초점(focus)에 해당하므로 VP에 부가되기 위해 외치(extrapose)된다고 주장한다. Heggie는 두 개의 지시적 의미를 지닌 NP로 이루어진 소절이 인허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18)과 같은 NP2 부가구조를 제안한다. 즉, 모든 논항들이 통사적으로 술어의 주어 자리에서 혹은 핵의 보충어 자리에서 인허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18)의 <동지시적 ‘-이다’>의 보충어 자리에 위치한 소절은 인허를 받을 수 없다. 즉, NP1과 NP2는 모두 지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은 서로에 대한 술어가 될 수 없다. Heggie는 이 곤경을 피하기 위해 심층구조에서 NP1과 NP2의 이동을 제안한다. NP1과 NP2가 이동된 후에 남겨진 소절은 어휘적 내용이 없으므로 인허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 구조는 표층구조(s-structure)에서 NP1이 NP2를 성분통어한다는 점에서 주술관계(predication relation)를 만족시킨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8)은 ‘be’가 어휘적 내용이 없는 두 개의 NP흔적으로 이루어진 소절이 선택한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다.

(19)에서 Moro는 처음부터 NP1과 NP2가 지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술어로 사용되고, NP1과 NP2는 [spec,IP]의 자리로 이동에 있어 상보적 분포 관계를 유지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Moro는 <동지시적 'be'>가 <술어적 'be'>와 동일하게 자신의 보충어로서 소절을 취한다고 주장하지만, 왜 NP2자리에 위치한 명사구가 이동에 있어서 한정적(definite)일 경우에는 가능하고 비한정적일 경우에는 불가능한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⁷⁾ 즉, 그는 잠정적으로 한정적인 명사구가 비한정적인 명사구와 동일하게 술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서, 정작 비한정적인 명사구는 이동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동지시적 'be'>구문에서 지시적인 의미를 지닌 NP1과 NP2는 각각 격을 부여받기위해서 [spec,IP]로 이동할 수 있는데, 이동하지 않고 남겨진 NP는 이동해간 NP와 동일한 격을 복사(copy)한다고 가정한다. 다시 말해서, Moro는 <동지시적 'be'>구문은 타동사구문과 동일하게 두 개의 논항을 포함하지만 오로지 하나의 AgrP를 가지는 defective 동사라 주장한다. 이 주장은 AgrP가 모든 논항 NP(argumental NP)의 격을 인허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모든 NP의 격을 인허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서 가능하다. 바꾸어 말하면, 지시적 NP가 [spec,Agr]에서 '한정사-핵 일치'(Spec-Head Agreement) 관계 하에서 격을 부여 받지 못할 경우, 그 지시적 NP는 자신과 술어적 관계로 연결(link)되어져 있는 다른 지시적 NP와 동일한 격을 공유함을 의미한다.⁸⁾

7) 영어에서 한정적 명사구와 비한정적 명사구는 인상구조, 분열문(cleft sentence), 타동사의 소절 보충어자리에서 문법성의 차이를 보인다. (i)의 예는 한정적 명사의 경우이고, (ii)의 예는 비한정적 명사의 경우에 해당한다.

- (i) a. The leader seems to be Mary.
 b. It is the leader who/*that is Mary.
 c. I consider the leader to be Mary.
 (ii) a. *A teacher(or Very clever) seems to be Mary.
 b. *It is a teacher(or very clever) that/who is Mary.
 c. *I consider a teacher(or very clever) to be Mary.

8) 이 격부여 방식은 <동지시적 'be'>구문에 제한되며, 다음의 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i) John is he.
 (ii) He is John.

Moro는 <동지시적 ‘be’>구문 (20)의 두 문장은 각각 (21a)와 (21b)의 심층구조에서 생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20) a. The Mayor is my best friend.
 b. My best friend is the Mayor.
- (21) a. [e PRES be [SC [the Mayor] [my best friend]]
 b. [e PRES be [SC [my best friend] [the Mayor]]

Moro는 <동지시적 ‘be’>의 보충어인 소절을 이루는 지시적 NP들인 NP1과 NP2가 기저에서 순서가 고정되어 있고, 표층에서 상보적으로 [spec,IP]로 이동한다고 가정한다. 여기서 Moro는 <동지시적 ‘be’>의 보충어 자리에 위치한 소절이 인허받을 수 없다는 Heggie 주장의 동일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지시적인 NP가 자신의 주어에 대해 술어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음 예문에서 <술어적 ‘be’>와 <동지시적 ‘be’>의 차이를 살펴보자.

- (22) a. John considers [SC [Mary] (to be) [a clever girl]]
 b. John considers [SC [Mary] *(to be) [Dr. Baker]]

(22a)에서 ‘consider’의 보충어 자리에 위치한 소절은 비지시적인 NP2를 술어로 취하며, <술어적 ‘be’>가 선택적으로 위치할 수 있다. 반면에 (22b)에서 ‘consider’의 보충어 자리에 위치한 소절은 지시적인 NP2를 취하며, 반드시 <동지시적 ‘be’>를 필요로 한다. 이는 Moro의 주장과 다르게 소절의 NP2가 지시적일 경우, 이 NP2는 자신의 주어에 대해 술어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22b)에서 지시적 의미를 지닌 고유명사 ‘Dr. Baker’가 술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동지시적 ‘be’>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제시한다. 첫째, 소절을 이루는 NP1과 NP2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으며, (20a)의 심층구조는 (21a)이고, (20b)의 심층구조는 (21b)이다. 결국, <동지시적 ‘be’>구문 포함된 두 개의 NP들(NP1과 NP2) 중, NP1만이 [spec,IP]로 이동할 수 있다. 둘째, <동지시적 ‘be’>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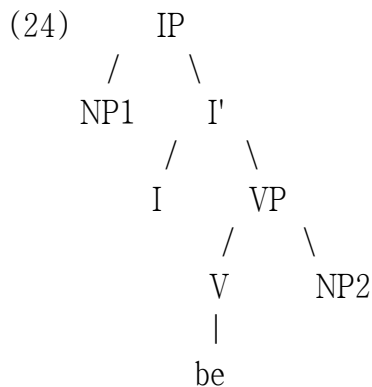
문에서 지시적 의미를 지닌 NP2는 지시적 성격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주어 NP1에 대한 술어 역할을 한다. 즉, 이 NP2는 결속원리, 격이론, 의미역이론 등 통사원리로부터 면제된다.

실제로 소설의 NP1은 NP2를 성분통어하는 위치에 놓여야 하며, 이는 아래의 문장을 통해 더욱 명확해 진다.

- (23) a. John and Mary are each other's bosses.
 b. *Each other's bosses are John and Mary.

(23b)가 비문인 이유는 재귀사인 ‘each other’가 선행사 ‘John and Mary’에 의해 성분통어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NP2는 NP1에 의해 성분통어되는 자리에 위치해야 하며, 어떤 통사적 이유로 격을 부여 받지 못한다. 또한 각주 8)과 같은 경우는 <동지시적 ‘be’>구문이 결속원리 조차 준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ia)에서 대명사 ‘he’는 절 내에서 자유로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John’이라는 자신을 성분통어하는 선행사를 갖고, (ib)의 지시적 NP인 ‘John’ 역시 선행사 ‘he’에 의해서 성분통어된다.

Rothstein(2001)은 Heggie와 Moro와 달리 영어 <동지시적 ‘be’>가 소설이 아닌 NP를 자신의 보충어로 취한다고 주장한다. Rothstein이 제시한 <동지시적 ‘be’>구문의 아래와 같다.



Rothstein이 (24)와 같은 구조를 제시한 이유는 <동지시적 ‘be’>가 <술어적 ‘be’>와 다르게 NP2는 지시적 의미를 지니므로 자신의 핵에게서 의미역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그의 주장에 따르면 <동지시적 ‘be’>는 자신의 보충어 NP2에게 의미역을 부여하지만 격을 부여할 수 없다. 이는 <동지시적 ‘be’>가 자신의 보충어에게 격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NP1에게 의미역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통해 격여과(Case Filter)를 피해가기 위해서이다. 결국 NP1은 [spec,IP]에서 격을 부여받을 수 있으나, 이 주격을 받는 자리는 허사(expletive ‘it’)자리와 같이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없는 자리이다.⁹⁾ 하지만 Rothstein(2001)은 허사자리에 지시적 명사구가 어떻게 위치할 수 있는지와 ‘be’구문의 NP1와 NP2의 격부여와 의미역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

위 세 가지 주장은 각각 다른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본질적으로 <동지시적 ‘be’>의 소절에서 지시적 NP2를 각각의 이론적 틀 내에서 설명해내려는 것이 공통적 관심이다. Heggie는 NP2가 초점에 해당하므로 VP에 부가되어 외치되어야 한다는 가정한다. Moro는 <동지시적 ‘be’>의 소절에 위치한 NP2와 <술어적 ‘be’>의 소절에 위치한 NP2를 동일하게 술어적 명사구로 제안하는 반면, <동지시적 ‘be’>의 NP2만이 술어적 명사로 사용되면서도 이동에서 자유롭고 격을 부여받는다 주장한다. Rothstein는 <동지시적 ‘be’>가 지시적인 NP2를 자신의 보충어를 선택하여 의미역표시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술어적 ‘be’>가 소절을 선택하다는 사실과 구별된다.

우리는 <동지시적 ‘be’>가 <술어적 ‘be’>와 동일하게 소절을 자신의 보충어로 선택하며, 소절에 포함된 NP1과 NP2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으며, NP1만이 격을 부여받기 위해 [spec,IP]로 이동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논의의 초점을 다시 국어로 돌려, 영어의 <동지시적 ‘be’>과 같이 <동지시적 ‘-이다’>의 NP1와 NP2도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며, NP1은 이동에 있어 자유롭고, NP2는 이동에 있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아래 예

9) Rothstein(2001)은 NP허가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i) NP licensing

Non-predicational NPs are licensed as syntactic arguments by internal theta-marking or as subjects of predicates.

이는 <동지시적 ‘-이다’>의 명사구들은 지시적 의미를 가지므로 비술어적이거나, 의미역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동사의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통사적 논항과 구별되어야함을 의미한다.

문을 살펴보자.

- (25) a. 철수와 영희는 서로의 친구이다.
 b. *서로의 친구는 철수와 영희이다.

위 예문에서 NP1은 NP2를 성분통어(c-command)할 수 있고, 반대로 NP2는 NP1을 성분통어할 수 없다. (25a)에서 재귀대명사 ‘서로’의 선행사인 ‘철수와 영희’는 ‘서로’를 성분통어하지만, (25b)와 같이 반대로는 불가능하다. 결속 원리가 표층구조에서 적용된다고 볼 때, ‘철수와 영희’만이 [spec,IP]로의 이동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6)을 보면, 과연 <동지시적 ‘-이다’>의 NP2가 결속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 (26) a. 철수가 그이다.
 b. 그가 철수이다.

(26a)에서 ‘그’는 대명사이지만 자신을 포함하는 절 내에서 ‘철수’라는 선행사를 갖는다. (26b)에서 역시 ‘철수’는 지시적 명사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포함하는 절 내에서 ‘그’라는 선행사를 갖는다. (25)과 (26)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동지시적 ‘-이다’>구문의 NP2는 지시적 의미를 갖는다고보다는 오히려 주어에 대한 술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b)가 비문인 이유는 ‘서로의 친구’에서 ‘서로’가 자신의 선행사로부터 성분통어될 수 없으면 결속이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이는 (25a)에서와 같이 주어 ‘철수와 영희’에 대한 술어로 사용된 것 같다. 그러므로 (25b)는 NP1 ‘철수와 영희’를 NP2인 ‘서로의 친구’와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26)가 결속원리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인 이유 역시, <동지시적 ‘-이다’>구문이 결속이론에서 예외로 설명되기 보다는 국어의 ‘-이다’구문의 NP2가 지시적 명사구든 아니면 대명사든 간에 이들은 항상 NP1에 대한 술어적 기능을 담당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래 예문은 화용론적인 현상을 설명하지만 위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27) a. 철수는 누구의 친구니?
- b. 철수는 영희의 친구다.
- c. 영희의 친구가 철수다.

질문 (27a)의 대답으로 (27c)보다는 (27b)가 더욱 자연스럽다. 이는 <동지시적 ‘-이다’>구문의 NP1과 NP2가 모두 지시적일지라도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술어적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우리는 <동지시적 ‘-이다’>구문인 (15a)의 ‘두루미의 학이다’에서 NP1에 해당하는 ‘두루미’와 NP2에 해당하는 ‘학’을 교체한 문장 ‘학은 두루미다.’는 (15a)와 다른 논리적인 형태를 취하므로 별도의 심층구조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¹⁰⁾

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술어적 ‘-이다’>는 형용사 파생접사로 가정할 것이며, <동지시적 ‘-이다’>역시 접사적 특질을 가지고 있으며, 명사구를 형용사로 파생시킨다는 안명철의 가정을 받아들여겠다.

(28-32)에 제시된 예문들은 국어의 ‘-이다’가 다의어임을 보여준다.

- (28) 그 학생이 철수이다.
- (29) 철수는 학생이다.
- (30) 철수가 최고이다.
- (31) 태극기가 팔력이다.

10) Irish의 동지시적 계사구문에서 NP2에 해당하는 명사구는 지시적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격을 부여받아야 할 경우 술어 NP2와 수와 성이 일치한 대명사가 계사와 주어 NP1 사이에 위치한다. 이는 동지시적 계사구문의 NP2가 지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격을 부여받기에는 불완전한 상태임을 암시해 준다. 국어의 <동지시적 ‘-이다’>구문에 이런 종류의 대명사는 나타나지 않지만, 동지시적 계사구문의 NP2가 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으로 추정된다.

(i) Is I an leadbharlann an teach ban
cop agr.masc the library.fem the house.masc white
 ‘The white house is the library’

(ii) Is e an teach ban an leabharlann
cop agr.masc the house.masc white the library.fem
 ‘The library is the white house’ (Date from Christian Bros (1960))

(32) 철수는 미래가 걱정이다.

안명철에 따르면, (28)의 <동지시적 ‘-이다’>는 NP1 ‘그 학생’과 NP2 ‘철수’를 연결하며, 시제굴절소와 결합되고, NP2는 NP1에게 의미역을 제공하는 술어로 사용된다. 이는 (28)이 NP1과 NP2가 바뀐 문장 ‘철수가 그 학생이다’와는 별도의 심층구조를 가짐을 의미한다. (28)의 <동지시적 ‘-이다’>는 명사구(NP)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통사적 파생접사라는 점에서 (29)의 <술어적 ‘-이다’>와 동일하게 분류된다, (30)의 <술어적 ‘-이다’>는 명사(N)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한다는 점에서 어휘적 파생접사로 분류된다. (28)에서는 술어 ‘철수이다’가 주어 ‘그 학생’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며, (29)에서는 술어 ‘학생이다’가 주어 ‘철수’에게 의미역을 부여하며, (30)에서는 술어 ‘최고이다’가 주어 ‘철수’에게 의미역을 부여한다.

의미역 이론에서 (31)의 주어 ‘태극기’는 자신의 술어 ‘필력이다’로부터 움직임의 대상역(theme)역을 부여받는다. (31)의 ‘-이다’는 ‘-거리다’ 혹은 ‘-대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현재시제/상 표시자 ‘-ㄴ’과 결합될 수 있다. (31)의 ‘-이다’는 (28-30)의 ‘-이다’의 동음이의어이다. 우리는 (31)의 ‘-이다’를 보조동사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논의는 이 소고에서 생략하겠다.

(32)의 주어 ‘철수’는 주격을 부여받으며, 자신의 술어 ‘걱정이다’로부터 대상역을 부여받는다. (32)은 ‘철수’가 경험자역을 부여받는 문장 ‘철수는 미래를 걱정한다’와 의미적으로 동일한 것 같지만, 실제 ‘걱정이다’는 ‘-ㄴ’ 혹은 ‘-는’과 결합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동사 보다는 형용사에 가까우므로, ‘걱정하다’와 동일한 논항구조를 상정할 수 없을 것 같다. ‘걱정이다’와 ‘걱정하다’의 차이점은 ‘-이다’ 선행명사의 특징을 논의하는 4장에서 세부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31)과 같이 ‘-거리다’ 혹은 ‘-대다’와 대체될 수 있는 보조동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다’는 (28-30)과 같이 접사로 사용되어 명사나 명사구와 결합되는 경우로 분류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국어의 ‘-이다’가 접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가정할 때면, 그 기능의 실체는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절에서 INFL의 시제굴절소나 일치굴절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통사범주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이다’이다. 실제 아래 영

어 예문 (33a)에서 ‘be동사’는 의미론적으로 NP1과 NP2를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시제/상 굴절소를 포함하고 있다.

- (33) a. The student is Mary.
 b. Mary is a genius.
 c. Mary is innocent.
- (34) a. I consider [Mary a genius].
 b. I proved [John innocent].

(33b)의 ‘be’는 시제/상굴절소와 결합되고, 자신의 보어와 함께 주어 ‘Mary’에게 대상역(theme)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국어의 <술어적 ‘-이다’>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 (33b)에 해당되는 국어의 예는 (29)이다. 명사와 함께 통사적 파생규칙을 통해 형용사를 생성하는 국어의 접사 <술어적 ‘-이다’>와 달리, 영어의 <술어적 ‘be’>는 형태적으로 독립적인 형식동사로 사용된다. 즉, <술어적 ‘be’>는 자신의 보어인 명사나 형용사와 결합하지 않는 독립적인 어휘로 존재하고, 의미적으로는 불필요하며, 시제/상굴절소를 포함한다. <술어적 ‘be’>가 의미적으로 불필요하다는 점과 관련하여 (34)를 살펴보자. (34)를 동사의 보충어 자리에 위치한 소절 내에서 ‘a genius’와 ‘innocent’가 각각 자신들의 주어인 ‘Mary’와 ‘John’에게 의미역을 부여한다. 여기서 ‘be’는 주어에게 의미역을 할당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한다.

Carnie(1993)에 따르면, 명사 술어가 반드시 동사와 결합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언어 간에 매개변향이 존재한다고 한다.¹¹⁾ 국어의 ‘-이다’는 영어의 ‘be’와 동일하게 반드시 시제포함자로서 반드시 명사술어구문에 나타나야 하나, 독립적인 어휘형태소로 존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이다’는 ‘be’와 다르게 자신의 명사술어로 최대투사범주(XP)와 핵(X)를 선택할 수

11) Carnie(1993)의 Tense Bearing Unit Parameter(TBU)는 명사가 시제를 포함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 언어간에 매개변향이 존재함을 설명한다. 이는 명사적 술어가 존재하는 절에서 보조동사의 존재 유무를 의미한다.

English: Off

Irish: individual Level only

Hebrew: On

있다.

‘-이다’의 선행명사 NP2를 형용사가 수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형용사가 수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아래에서 반복된 (15)에서 보여지 듯, ‘-이다’는 명사, 명사구, 명사상당어구 등과 결합될 수 있으며, 이들의 차이는 X-bar 계층의 차이에 기인한다. ‘-이다’와 결합되는 투사범주가 XP인 (15a)와 (15b)의 경우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NP)가 되지만, ‘-이다’와 결합되는 투사범주가 X인 (15c)의 경우, N은 부사에서 파생된 명사상당어구에 해당하며,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 (15) a. 두루미는 학이다.
 b. 아카시아는 콩과식물이다.
 c. 경애가 최고이다.

(15a-b)의 ‘명사+이다’에서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15c)의 ‘명사+이다’에서 명사는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15c)에서 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 명사들이 부사에서 파생된 명사상당어구이기 때문이다.¹²⁾ ‘-이다’를 선행하는 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혹은 받지 못하고는 ‘-이다’구문을 <동지시적 ‘-이다’>구문과 <술어적 ‘-이다’>구문으로 분류하는 것과 무관하며, 이와 같은 차이는 단지 ‘-이다’를 선행하는 명사의 형태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지시적 ‘-이다’>와 <술어적 ‘-이다’>라는 구분이 불

12) 이에 대한 서정수(1996)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다. 국어에는 ‘자유부사어’가 있다. 이들은 시간, 양태, 수량과 관련되는 부사어 중에 각 용언과 두루 어울릴 수 있는 부사들을 가리킨다. 시점이나 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는 자유 부사어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긴 동안이나 짧은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어 등은 자유 부사어의 기능을 드러낸다. 그가 <술어적 ‘-이다’>구문과 관련해 제시한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i) 그이는 {일생동안 / 15년 동안 / 오랫동안 / 내내} 이 학교의 선생이다. (기간 부사어의 일부)
 (ii) 우리는 {날마다 / 항상 / 여전히 / 늘 / 날마다} 정부의 파수꾼이다. (찾기 부사어의 일부)
 (iii) 그 아이는 {확실히 / 분명히 / 정말로} 최고이다. (양태부사어의 일부)
 (iv) 이 제품들은 {전부 / 모두 / 다 / 모조리} 일류이다. (수량부사어의 일부)

필요함을 주장했다. <동지시적 ‘-이다’>구문에서 지시적 의미를 지닌 NP2가 주어 NP1에 대한 술어로 사용된다는 가정은 ‘지시적 명사구와 같은 지시적 표현은 술어가 될 수 없다’는 기존의 가정을 거스르는 주장인 듯싶다. 그러나 NP2가 자신의 의미적 실체를 지닌다고 할지라도 과연 NP2가 논항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과연 그 NP2가 논항의 자리를 점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역을 가질 수 있을까? 실제로 이 NP2는 격도 의미역도 부여받을 수 없는 통사적으로 불완전한 논항의 자리를 점하고 있다. 이는 논항구조로 어휘관계구조(Lexical Relational Structure)와 같은 통사적인 구조를 제시한 Hale and Keyser(1993)의 주장이나, 의미역의 부여가 논항이 아닌 논항이 위치한 자리(theta-marked position)에 부여된다는 Chomsky(1981)의 주장과 긴밀히 연관된다. 이런 점에서 (15a)의 <동지시적 ‘-이다’>구문과 (15b-c)의 <술어적 ‘-이다’>구문의 보충어자리는 격과 의미역을 부여받을 수 없는 불완전한 논항 자리로 예견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다’의 보충어자리가 격부여와 관련해 불완전한 위치라는 사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안한다.

(35) 국어의 서술형 접사는 어근(base)의 [+N]자질을 제거한다.¹³⁾

결국, 명사구가 [+N]자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명사구가 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5)는 서술형 접사 ‘-이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서술형 접사에도 적용된다. 아래 예는 김창섭(1984)이 제시한 예문이다.

- (36) a. 그 집은 [재벌이 사는 집]답지 않게 평범한 집이었다.
 b. 그 학교의 교육은 [전통있는 명문 사학의 교육]답게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c. 그의 행복은 [오랜 수도생활 끝에 얻은 행복]답게 내적

13) 이 일반화는 영어 예문 (22b)에도 적용되는 것 같다. 즉 <동지시적 ‘be’>가 ‘Dr. Baker’에게서 [+N]를 제거함으로써 Dr. Baker가 자신의 주어에 대한 술어 역할을 하게 한다.

으로 충만한 것이었다.

- d.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과연 [너]답다.
e. 좀 [공부 하는 것]답게 공부할 수 없니?

(36)에서 서술형 접사 ‘-답다’는 자신과 결합하는 NP에게서 [+N]자질을 제거하고, 그 NP는 격을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국어에서 일반적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우리는 ‘-이다’구문이 Moro가 제시하고 있는 (19)의 구조, 즉 ‘-이다’가 소절을 자신을 보충어로 선택하는 구조를 상정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동지시적 ‘-이다’>와 <술어적 ‘-이다’>를 하나의 동일한 ‘-이다’로 상정할 것이며, ‘-이다’가 NP2와의 결합과정에서 NP2로부터 [+N]자질을 제거하고, 해당 명사가 명사의 본질적인 속성인 격부여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므로 (15a-b)에서 NP2와 ‘-이다’의 결합은 통사부에서 행해지며, (15c)에서 N과 ‘-이다’의 결합은 어휘부에서 행해진다고 가정할 것이다. 안명철이 주장하고 있듯이 (15a-b)의 ‘학’/‘콩과식물’과 ‘-이다’의 결합은 통사적 파생이고, (15c)의 ‘최고+-이다’의 결합은 어휘적 파생이다.

지금까지의 가정들을 통해 핵말(Head-final) 언어로서 국어의 ‘-이다’구문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상정한다.

- (37) a. [IP e II' I [AP [SC NP1 NP2] [A 이다]]]]
b. [IP e II' I [AP NP1 [A N+이다]]]]

(37a)은 (15a-b)의 통사구조이고, (37b)는 (15c)의 통사구조이다. (37a-b)에서 NP1은 각각 ‘NP2+이다’와 ‘N+이다’에게서 대상역을 부여받으며, 격을 부여받기 위해 [spec,IP]로 이동한다. (37a)에서 NP1이 대상역을 부여받는 것은 모든 소절의 주어가 대상역을 갖는다는 가정과 일치한다.¹⁴⁾

14) 다음에 제시되는 소절을 포함하는 영어문장에서 소절 서술어의 통사범주에 상관없이 모든 소절의 주어는 대상역을 부여받는다 (안승신 1995), 아래 예문의 각각의 소절 주어들은 i)은 VP인 ‘repaired’에게서, ii)는 AP인 ‘kind’에게서, iii)은 PP인 ‘off the ship’에게서, iv)는 NP인 ‘a genius at music’에게서 대상역을 부여받는다.
(i) We want [our doors [repaired]]

서정수(1996)는 [실체성]과 [상태성]과 같은 의미자질을 이용하여 명사의 성격을 분류한다.¹⁵⁾ ‘-이다’와 결합되는 NP들이 [실체성]과 [상태성]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자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자.¹⁶⁾ (38a)에서 ‘-이다’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명사 ‘산책’은 [-실체성]와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다. ‘산책’과 같은 명사들은 ‘-이다’와 결합될 수 있으며, 또한 ‘-하다’와도 결합될 수 있다.

(38a)의 ‘-이다’구문이 (38b)의 ‘-하다’구문과 통사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자. (38a-b)의 ‘-이다’와 ‘-하다’를 선행하는 명사에 대격을 부여한 예가 (39a-b)이다.

- (38) a. 그는 매일 산책이다.
- b. 그는 매일 산책한다.

- (ii) Tom considers [Jim [kind]]
 - (iii) I expect [that man [off the ship]]
 - (iv) You'll find [John [a genius at music]]
- 15) 서정수(1996)가 명사를 분류하기 위해 사용한 [실체성]과 [상태성] 의미 자질을 통해 ‘-이다’와 결합하는 선행명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a. 그 학생이 철수다.
 - b. 오늘의 토론주제가 겸손이다.
 - c. 그의 취미는 운동이다.
 - (ii) a. 김선생님의 아들은 학생이다.
 - b. 그는 야구가 최고이다.
 - c. 그는 매일 산책이다.
- (i-ii)를 통해 모든 종류의 명사들이 ‘-이다’와 결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i)의 ‘-이다’는 <동지시적 ‘-이다’>로 모든 종류의 명사와 결합될 수 있다. (ia)의 ‘-이다’는 [+실체성] 선행명사와 결합되고, (ib)의 ‘-이다’는 [-실체성]과 [+상태성] 선행명사와 결합되고, (ic)의 ‘-이다’는 [-실체성]과 [-상태성] 선행명사와 결합된다. (ii)의 ‘-이다’는 <술어적 ‘-이다’>로 역시 모든 종류의 명사와 결합될 수 있다. (iia)의 ‘-이다’는 [+실체성] 선행명사와 결합되고, (iib)의 ‘-이다’는 [-실체성]과 [+상태성] 선행명사와 결합되고, (iic)의 ‘-이다’는 [-실체성]과 [-상태성] 선행명사와 결합된다.
- 16) 서정수(1996)는 ‘-하다’의 선행명사의 의미적 특성을 [실체성]과 [상태성] 두 자질을 이용해 기술한다. ‘-하다’는 [-실체성] 의미자질을 갖은 명사와 결합한다.
- [+실체성] 명사: 나무, 소, 구름 등
 - [-실체성,+상태성] 명사: 친절, 정직 등
 - [-실체성,-상태성] 명사: 운동, 변화 등

(39) a. *그는 매일 산책을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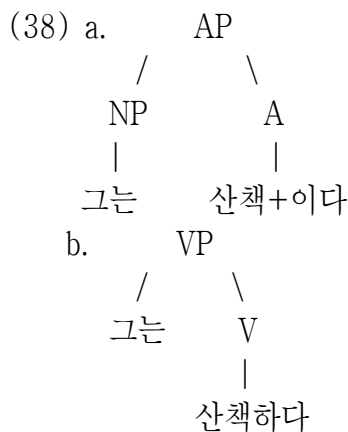
b. 그는 매일 산책을 한다.

(39a)는 비문이고, (39b)는 정문이다. (39b)의 ‘-하다’는 독립적으로 선행하는 동사적 명사 ‘산책’에게 대격을 부여할 수 있다. 더구나 ‘-하다’는 시제/상굴절소 ‘-ㄴ’과 결합될 수 있다. 반면, (39a)의 ‘-이다’는 선행명사에게 대격을 부여할 수 없고, 시제/상굴절소 ‘-ㄴ’과 결합될 수 없다는 점에서 ‘-하다’와 구분된다. (38a-b)를 (40a-b)와 같은 진행상 문장으로 바꾸어 보자.

(40) a. *그는 산책이고 있다.

b. 그는 산책하고 있다.

(40a)는 비문이고, (40b)는 정문이다. (40a)에서 ‘-이다’는 선행명사가 [-상태성]자질을 지니고 있으나, 진행상을 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용사와 비슷한 특성을 지닌다. 반면 (40b)에서 ‘-하다’는 [-상태성]자질을 지니고 진행상도 취할 수 있다. (38a)와 (38b)의 차이는 4절에서 제시된 아래와 통사적 구조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화 명사인 ‘산책’이 ‘-이다’ 혹은 ‘-하다’와 결합될 경우, 빈도 부사의 유무에 따라 문장의 문법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자. (40)에는 부사가 없으며, (41)에는 ‘매일’이라는 부사가 존재한다.

- (40) a. *그는 산책이다.
 b. 그는 산책한다.
 (41) a. 그는 매일 산책이다.
 b. 그는 매일 산책한다.

(40b)와 (41b)에서 ‘-하다’는 빈도부사의 유무에 상관없이 [-상태성]자질을 가진 동사화 명사 ‘산책’과 결합될 수 있으나, 빈도부사가 없는 (40a)에서 동사화 명사 ‘산책’과 ‘-이다’의 결합은 불가능하다. 빈도부사가 있는 (49)에서 ‘산책’과 ‘-이다’는 결합될 수 있다. 빈도부사들이 ‘산책이다’를 수식해 주는 (41a)는 빈도부사가 없는 (40a)와 문법성에서 대조를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아야 한다. ‘산책’과 같이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빈도부사의 수식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이다’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42)과 같은 <동지시적 ‘-이다’>구문으로 문장이 전환되어야 한다.

- (42) 그의 취미는 산책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술어적 ‘-이다’>구문의 ‘N+이다’는 형용사와 같이 주어의 ‘속성이나 지속적인 상태’를 서술한다. 이는 ‘N+이다’가 형용사와 동일하게 [+상태성]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48a)에서와 같이 <술어적 ‘-이다’>가 [-실체성]과 [-상태성]자질을 가진 행위명사 ‘산책’과 결합되어 주어의 ‘속성이나 변함없이 지속되는 상태’를 서술해주는 표현은 어색하게 들린다. 문장 (40a)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하게 위해 ‘N+이다’를 수식하는 빈도부사를 삽입한 경우가 (41a)이다. 우리는 (41a)에 사용된 빈도부사들이 주어의 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 상태로 한정해줌으로써 ‘산책’과 같은 [-상태성]자질을 가진 명사가 <술어적 ‘-이다’>와 결합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가정할 것이다.

다음에서 <술어적 ‘-이다’>가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와 <술어적 ‘-이다’>가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의미적 차이를 Kratzer의 술어분류 기준에 근거해 살펴볼도록 하자.

Kratzer(1989)는 술어를 개체층위(individual-level) 술어와 단계층위(stage-level) 술어로 나눈다. 전자는 한 개체의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성격을 나타내 주고, 후자는 한 개체의 일시적인 성격을 나타내 준다. 또한 Kratzer는 단계층위(stage-level) 술어는 시간적/공간적 위치를 표시하는 ‘L’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아래 문장은 위 술어 분류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가 된다.

(43) John was a doctor.

(43)은 두 가지 해석을 가진다. 첫째, 의사라는 John의 영구적인 성격이 John이 죽은 후에도 계속된다는 개체층위(individual-level) 술어적 해석이고, 둘째, John의 의사 직분은 과거 일시적인 일이었고, 지금은 생존해 있더라도 더 이상 의사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단계층위(stage-level) 술어적 해석이다. Kratzer는 이 차이를 아래와 같이 나타낸다.

(44) a. PAST [doctor'(John)] 개체층위(individual-level)
 b. (∃L)[PAST(L) & doctor'(John,L)]
 단계층위(stage-level)

Kratzer의 분석을 받아들일 경우, 한국어의 <술어적 ‘-이다’>구문을 개체층위(individual-level) 술어구문과 단계층위(stage-level) 술어구문으로 이분할 수 있다. <술어적 ‘-이다’>와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가 결합될 경우는 (44a)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술어적 ‘-이다’>와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가 결합될 경우는 (44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15)의 예문들은 모두 개체층위술어구문인 반면, [-상태성]자질을 가진 동사화 명사 ‘산책’과 ‘-이다’가 결합된 (41a)는 단계층위(stage-level) 술어임을 알 수 있다.¹⁷⁾

17) (15a)와 (41a)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5a) PRES [두루미'(학)]

(41a) (∃L)[PRES(L) & 산책'(그,L)]

5. 결론

이 소고는 국어 ‘-이다’구문의 특성을 고찰하고, ‘-이다’구문을 <동지시적 ‘-이다’>구문과 <술어적 ‘-이다’>구문으로 나누어 각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다’ 종류를 두 가지로 설정한 이유는 ‘-이다’의 보충어 위치에 나타나는 명사구(NP)가 지시적 의미를 가질 경우와 지시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지시적 ‘-이다’>의 보충어 역시 표면적으로는 지시적인 의미를 지니지만 결속이론, 격이론, 기타 화용론적 이유에서 일반 논항과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동지시적 ‘-이다’>의 보충어 자리는 ‘-이다’에게서 [N]자질을 빼앗긴 불완전한 논항이 위치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이 <동지시적 ‘-이다’>의 보충어자리에 위치한 명사구는 <술어적 ‘-이다’>의 보충어자리에 위치한 명사구와 동일하게 자신의 주어에 대한 술어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국어의 ‘-이다’는 자신의 보충어로 소절을 택하며, 그 소절을 구성하는 두 명사구들 중, NP2는 주어 NP1에 대한 술어적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이다’는 명사구를 형용사로 파생시킨다는 점에서 통사적 파생접사로 분석한다. 또한 국어의 ‘-이다’는 명사(N)과 결합하는데 ‘N+이다’는 형용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이 결합은 어휘부에서 명사를 형용사로 파생한다는 점에서 어휘적 파생접사로 분석한다. 요약하면, 국어의 ‘-이다’는 명사구나 명사를 형용사로 파생시키는 서술형 파생접사로, 시제소와 결합한다.

또한, 대부분의 ‘-이다’는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동사화 명사들과 결합하나, ‘산책’과 같이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명사와 결합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 명사들은 ‘-이다’ 뿐만 아니라 ‘-하다’와도 결합한다. ‘산책+이다’ 역시 어휘적 파생의 한 예이며, 이들은 주로 빈도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는 Kratzer의 분석대로 ‘-이다’가 개체층위 술어와 단계층위 술어로 사용되는데 이들 중, 특히 [-상태성] 의미자질을 가진 동사화 명사인 ‘산책’과 ‘-이다’의 결합은 한 개체의 일시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단계층위 술어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인 용 문 헌

- 고영근 (1989). 『국어형태론연구』 . 서울대학교 출판부.
- 고창수 (1992). 국어의 통사적 어형성. 『국어학, 22』 . 259-269. 국어학회.
- 김상대 (1988). 형용사의 의미 특성, 『선칭어문, 17』 . 239-253.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 박준하. 김병선. (1991). 『국어 형용사 사전』 . 계명문화사.
- 서정수. (1975). 『동사 ‘하-’의 문법』 . 대구: 형설출판사.
- 서정수. (1996). 『개정 현대 국어 문법 연구의 개관』 . 한국문화사.
- 서정수. (1996). 『현대 국어문법론』 . 한양대학교 출판원.
- 송석중. (1993). 『국어문법의 재조명: 통사구조와 의미해석』 . 지식산업사.
- 안명철. (1995). ‘이’의 문법적 성격 재찰. 『국어학, 25』 . 29-49. 국어학회.
- 안승신 (1995). 영어 보문소절의 통사구조, 『언어, 20(3)』 . 103-126. 한국언어학회.
- 양정석. (1986). ‘이다’의 의미와 통사. 『연세어문학, 19』 . 5-29. 연세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 유현경. (1998). 『국어형용사연구』 . 연세대학교, 한국문화사.
- 임홍빈. (1999). 생성문법의 한 문제: ‘-이다’/‘-하다’를 중심으로. 『국어문법의 심층 3』 . 태학사.
- Ahn, Sung-Ho. (1997). A Syntax of Copular Sentences with Clause-Taking Precopular Nominal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7, 35-88.
- Carnie, A. (1993). Nominal Predicates in Irish, *MIT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9, 89-129.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Chomsky, N. (1992).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Cambridge, MA: MIT Press.

- Grimshaw, J. (1990). *Argument Structure*. Linguistic Inquiry Monograph Series 18, Cambridge, MA: MIT Press,
- Heggie, L. (1988). *The Syntax of Copular Constructions*.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 Hale, K. and J. Keyser. (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of syntactic relations. In K. Hale and S.J. Keyser, (Eds.).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Cambridge, MA: MIT Press.
- Jo, Mi-Jeung. (1996). Morphosyntactic Roles of Grammatical Verb Ha.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21, 1179-1204.
- Kratzer (1989). Stage-level and individual level predicates. Unpublished manuscript, Umass.
- Lee, J. Yoo-Ja. (1993). Three Types of Light Verb Construction in Korean.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401-410. Harvard University.
- Longobardi, G. (1984), Copular Construction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Venice.
- Moro, Andrea. (1997). *The Raising of Predicates: Predicative noun phrases and the theory of clause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thstein, Susan (2001). *Predicates and their Subjects: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74. Kluwer Academic Publishers.
- Rapoport, R. Tova. (1984). Copular Constructions in Hebrew. *CLS*, 20.
- Sung, Tae-Soo. (1999). The Progressive of Korean and English. *Inmunshoiyoungu*, 1, 109-126. Namseoul University.
- Urushibara, Saeko. (1993). Nonagentive Light Verb Constructions: Korean vs. Japanese. *Har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V, 423-435. Harvard University.

Abstract

Affixal Analysis on Korean ‘-i’ and ‘Be’.

Taesoo Sung

There have been several kinds of proposals into which syntactic category Korean ‘-ida’ should be classified: word-level categories (verb, particle or copula) or an affix. This article adopts the assumption that Korean ‘-ida’ is either a syntactic derivational affix or a lexical derivational affix. The syntactic derivational affix ‘-ida’ selects a small clause as its complement. The small clause is composed of subject NP1 and predicate NP2, and NP2 assigns a theta role to NP1. NP2 may be either referential or non-referential. In ‘-ida’ constructions, the subject NP1 is predicated of the referential NP2, differently from what we expect. The NP2 is exempted from the binding principles and located in the incomplete argumental position in which it is neither Case-marked nor theta-marked, and exempted from the binding principles. We claim that this is why the syntactic derivational affix ‘-ida’ deprives the referential NP2 of its [+N] feature. After the lexical derivational affix ‘-ida’ is combined with N in the lexicon, the amalgam plays the same role as a predicative adjective. Also, the lexical derivational affix ‘-ida’ combines with NPs with [+state] semantic feature as well as NPs with [-state] semantic feature. The [-state] N plus ‘-ida’ (for example, *sanchaek-ida*) is a stage-level predicate, since it identifies a temporary property of the individual in question; the [+state] N plus ‘-ida’ (for example, *choyko-ida*) is an individual-level predicate, since it identifies permanent and stable properties of an individual.

Key Words: Syntactic derivational affix, Lexical derivational affix,
Referential -ida, Predicational -ida
통사적 파생접사, 어휘적 파생접사, <동지시적 ‘-이다’>, <술
어적 ‘-이다’>

논문접수일: 2009. 10. 26

심사완료일: 2009. 11. 8

게재확정일: 2009. 12. 14

이름: 성태수

소속: 남서울대학교 외국어학부 영어과

주소: (330-800) 충남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 21

이메일: taesung@nsu.ac.kr

